

KMI 동향분석

VOL.51

2017 OCTOBER

발간년월 2017년 10월(통권 제51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이남수 관측기획팀장

(nslee1203@kmi.re.kr / 051-797-4507)

강경희 양식관측팀 연구원

(khkang@kmi.re.kr / 051-797-4513)

조국훈 관측기획팀 연구원

(ghcho@kmi.re.kr / 051-797-4519)

김대영 수산업관측센터장

(mobydick@kmi.re.kr / 051-797-4541)

연어는 세계인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최근에는 오메가-3 등의 함량이 높아 웰빙식품으로 각광 받으면서 국제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6년 세계 연어 교역규모는 지난 수십 년간 수산물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새우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수산물 선호도가 높은 50~60대 뿐만 아니라 20~30대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국내 연어 수요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마트의 연어 매출액이 국내 대표 양식 어종인 광어를 상회할 만큼 인기 횡감이 되었다.

연어 수요가 늘면서 1997년 6천 톤에 불과하던 국내 연어류 공급량은 2015년부터 3만 톤을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세는 수입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1997년 2천 톤에 불과하던 수입량은 2016년에는 2만 8천 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연어 수입량 증가는 외식문화 발달과 서구화된 식습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80년대까지 연어는 주로 수출가공 원료로 수입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일식집 및 고급 레스토랑에서 소비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부터 씨푸드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연어 소비가 본격화 되었다.

향후에도 연어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중심의 연어전문점들이 최근에는 경북, 전남 등의 지방 도시로 점차 확산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수산물을 기피하는 20~30대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어 수요증가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입연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수면 양식 송어는 수입 연어와 상이한 시장 및 소비행태를 가지고 있고, 해면 양식 연어류 생산량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세계 연어류 공급은 노르웨이, 칠레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나, 수요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외에도 중국, 브라질 등 새로운 소비국들의 등장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세계 연어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의존적인 수산업의 특성 상 연어류 수급불균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고등어, 명태가 ‘국민 생선’이라는 별칭처럼 최근 연어는 광어, 우럭과 함께 ‘국민 횡감’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연어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먹거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먹거리 관리 차원에서 품질 좋은 연어를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간헐적으로 세계 연어류 수급동향을 파악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만으로는 ‘연어’라는 먹거리가 현재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 차지하는 중요도가 너무나 커졌다. 전 세계 연어의 생산·가격·수출입·소비동향 및 시장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식품정책에 맞추어 수입 연어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연어 공급을 위해서는 주요 생산국과의 합작투자나 생산 업체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연어 공급 다변화 방안’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외 양식 투자를 통한 연어 공급안정화를 이룬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칠레 연어 생산 및 수출 업체인 Salmenes Multiexport사와 합작투자한 미쓰이사나 세계 3위의 연어 생산 업체인 노르웨이 Cermaq사를 인수한 미쓰비시사,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식 연어 일괄시스템을 구축한 닛스이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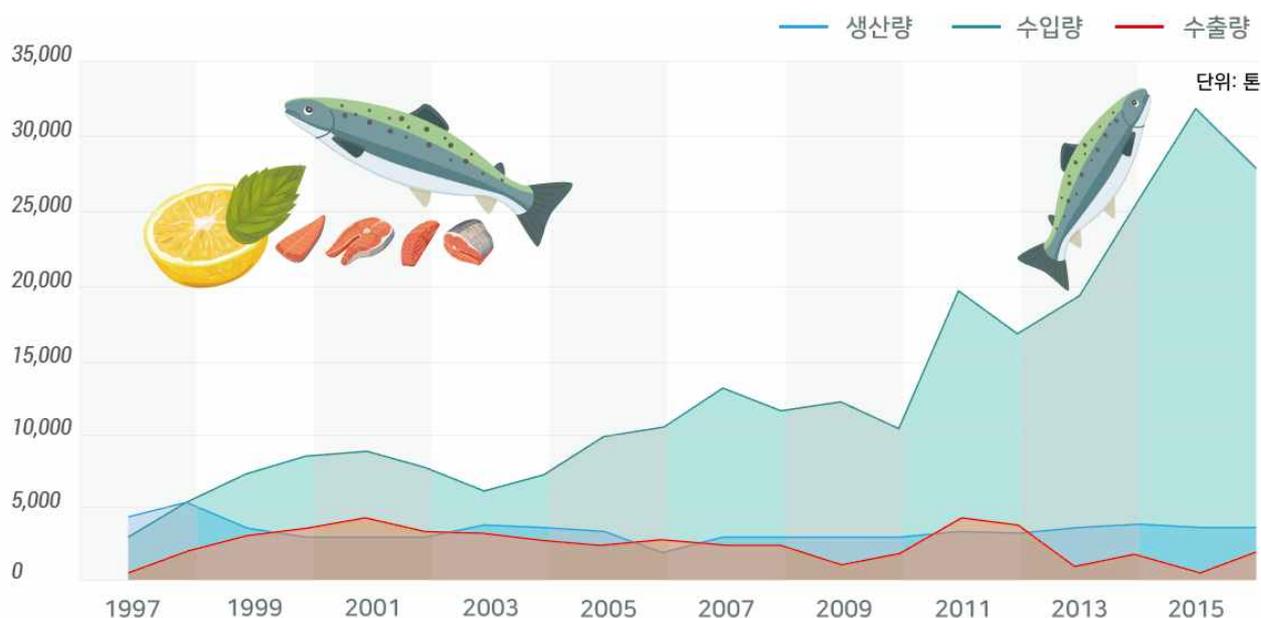
장기적으로는 국내 연어류 생산량을 늘려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국내 연어 생산에 있어 양식적지 부족, 수량(水量)적 한계 등이 존재하는 내수면 양식보다는 해면을 활용한 연어류 생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내 연어시장, 3만 톤 규모로 지난 20년 간 6배 확대

■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연어시장 급성장, 국내 공급량의 95% 수입산 점유

- 지난 1997년 5,735톤이었던 국내 연어류 공급량¹⁾은 20년만인 2016년에는 6배 이상 증가한 2만 9,517톤이었음. 이러한 증가세는 연어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결과임
- 1990년대 후반 국내 연어류 생산량은 약 4,000톤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3,000톤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16년 국내 연어류 생산량은 3,396톤에 불과함
- 그러나 2016년 연어류 수입량은 1997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한 2만 8,023톤이었음. 이는 국내 연어류 공급량의 94.9%에 해당함. 즉, 국내 연어류 시장은 수입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국내 연어류 공급량 추이



자료: 어업생산통계(1997~2016), 통계청

■ 국내 연어류 생산, 3천 톤으로 수입량의 1/10 수준

- 국내에서 생산되는 연어류는 무지개송어(Rainbow Trout), 백연어(Chum Salmon) 등이 대부분임. 2016년 국내 연어류 생산량은 3,396톤임. 어종별로는 내수면에서 양식된 무지개송어가 전체의 90.6%를 차지하며, 그 외는 9.4%로 미미한 수준임

1) 본 분석에서 국내 연어류 공급량은 생산량과 수입량을 더한 값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것임

그림 2. 국내 연어류의 어종 및 생산 방법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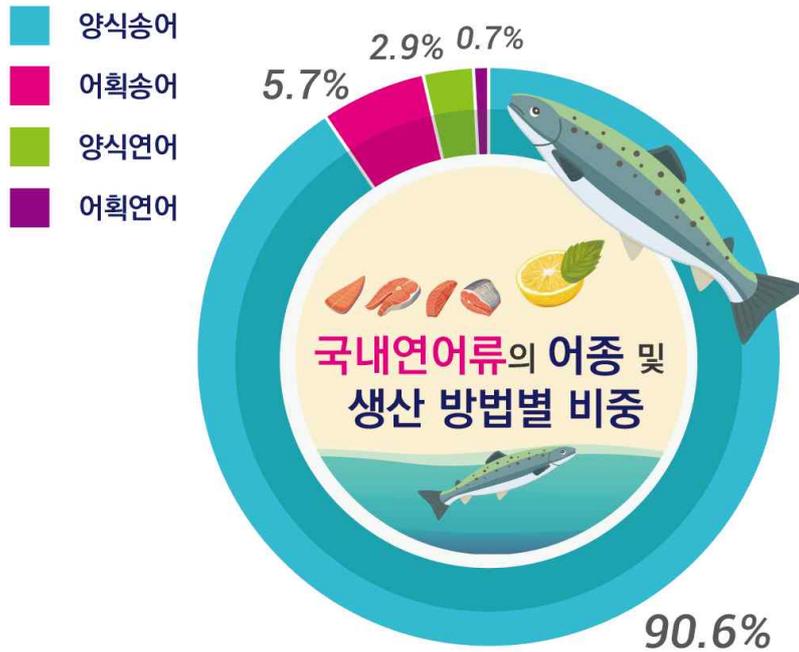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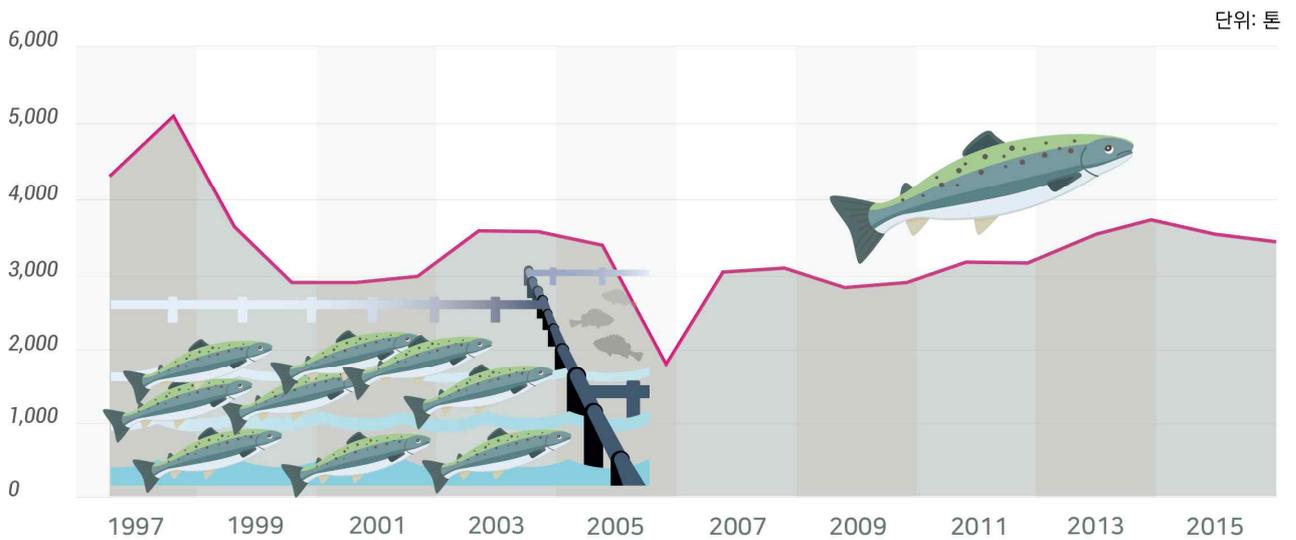


그림 3. 국내 연어류 생산량 추이



자료: 어업생산통계(1997~2016), 통계청

- 국내 연어류 생산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1990년대 후반부터 생산량이 3,000톤 수준으로 정체된 점임. 국내 연어류 생산량은 1998년 5,038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3,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종은 대부분 무지개송어임

- 국내 양식 송어 생산량이 1998년 맑은 물 정책²⁾, 2006년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파동³⁾ 등으로 급감했으며, 1999년까지 연간 1천 톤 이상 생산되던 자연산 연어류가 2000년대 이후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두 번째 특징은 최근 해면에서 양식 연어류가 생산되고 있는 점임. 해상에서 생산되는 양식 송어는 2012년부터 연간 20톤 정도 생산되고 있으며, 2015년 2톤에 불과하던 연어 생산량은 2016년 100톤으로 증가했음⁴⁾

■ 연어류 수입, 전체 수산물 수입액 기준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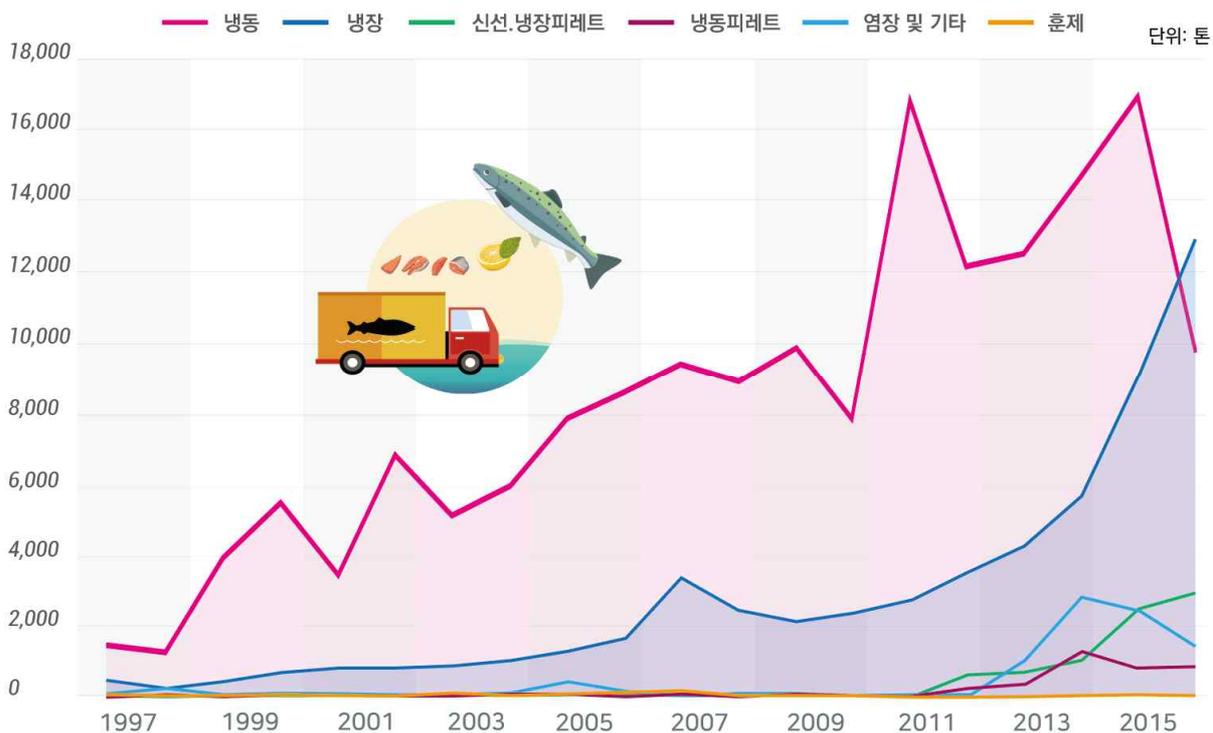
- 연어류 수입⁵⁾은 199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2만 9,517톤이 수입되었음. 지난 20년간 연어류 수입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임. 그와 대조적으로 국내 연어류 생산량은 성장률이 -1.3%임
- 연어류 수입 규모는 2016년 기준 수산물 수입량으로는 13번째, 수입액은 3번째로 많았음

■ 2010년대 수입 연어류 제품 다양화, 2016년에는 신선냉장 수입이 냉동 앞질러

- 최근 연어류 수입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첫째, 2011년을 기점으로 수입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점임. 특히 2011년 연어류 수입량은 2010년의 두 배인 1만 9,534톤에 달하였음
- 둘째, 수입 연어 제품이 필렛, 염장, 훈제 등으로 다양화된 것임. 2012년까지는 초밥, 샐러드 등으로 주로 소비됨에 따라 냉동 연어 제품이 전체 수입량의 72.5%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2012년 이후 회, 통조림, 훈제제품 등의 소비가 늘면서 신선·냉장, 필렛, 염장, 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2년 신선·냉장 및 냉동을 제외한 연어류 수입량은 전체의 5.9%인 985톤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5,400톤으로 5배가량 증가했음

2) 1970년 「내수면자원개발종합계획」으로 댐이나 호수 등에서 대규모로 성행하던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가 1999년 전면 금지됨
 3) 양식 송어 및 향어에서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Green)이 검출된 사건임
 4) 2008년 고흥에서 해수순치 방식을 이용하여 송어 양식이 시도되었으며, 2011~2012년부터 여수, 통영, 제주, 강원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음
 5) 수입되는 연어류의 종류는 대서양연어(Atlantic salmon), 태평양연어(pacific salmon), 홍연어(Sockeye salmon), 무지개송어(Rainbow Trout) 등임.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대서양연어의 수입량이 전체 연어류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4. 연별·제품별 연어류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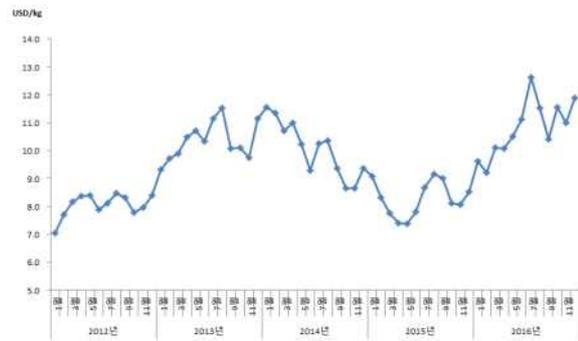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진흥원

- 셋째, 2013년부터 신선·냉장 제품의 수입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39.9% 증가한 1만 2,821톤이 수입되면서 냉동 제품 수입량을 앞질렀음
- 최근 신선·냉장 제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노르웨이의 신선·냉장 제품 가격이 하락한 것도 하나의 요인임. 노르웨이산 연어류 가격 하락은 러시아의 노르웨이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크로네 약세 등이 원인임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2015년) 이후 노르웨이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음. 결과적으로 2013년 노르웨이의 對러시아 연어 수출량은 16만 3,583톤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전무했음. 이로 인해 노르웨이산 연어가격이 급락하면서 국내 노르웨이산 신선·냉장류 수입 가격도 하락했음

그림 5. 월별 신선·냉장 및 냉동 연어류 수입량



그림 6. 신선·냉장류 수입 단가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진흥원

- 노르웨이 크로네의 가치 하락도 국내 노르웨이산 연어류 수입 증가 요인임.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주요 산유국인 노르웨이의 크로네가 2014년 6월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7. 크로네/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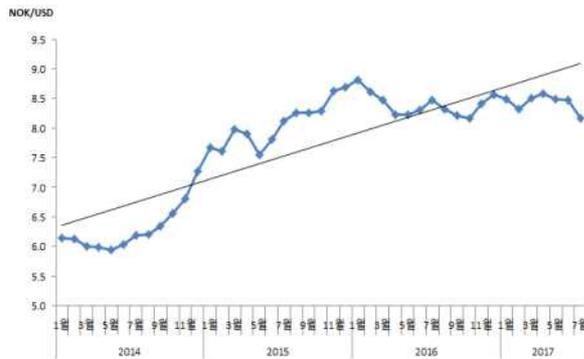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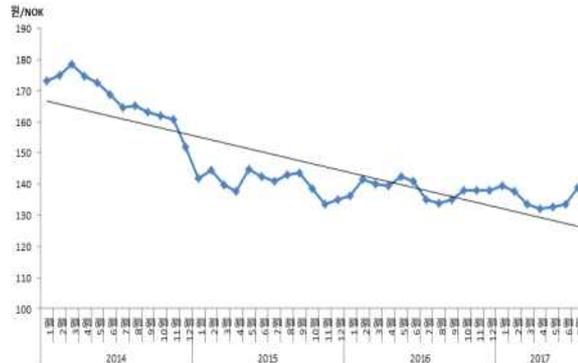


그림 8. 원/크로네 환율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반면 주 수입 제품이었던 냉동 연어류 수입량은 2016년 9,414톤으로 전년 대비 42.5% 감소했음. 냉동 제품은 주로 칠레산이 수입되는데, 2016년 칠레 해역 내 적조가 발생함에 따라 양식 연어류가 대량 폐사⁶⁾되어 칠레산 냉동 연어류 수입이 감소했음

6) '16년 상반기 칠레 해역에서 적조가 발생함에 따라 대서양연어, 은연어, 송어 등이 약 2천 3백만 마리의 폐사되었음. 대량 폐사의 영향으로 '15년 대비 생산량이 17.6% 감소하면서 수출량 역시 10% 가량 감소한 409,372톤이었음

연어류 광어우럭 다음의 ‘국민 횡감’으로 등극, 소비도 급증

■ 수입 연어, 국내 양식 대표품목인 광어우럭 다음으로 횡감시장 대표 어종으로 등극

- 수입 연어류의 회(초밥 포함) 소비량은 조사된 바 없으나, 국내 연어류 소비행태 조사 결과⁷⁾, 연어류 소비의 60.6%가 회, 초밥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2016년 신선·냉장 및 냉동 연어 수입량 2만 2,235톤 중 회·초밥으로 소비된 양은 최소 1만 3,474톤으로 추정됨
-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횡감은 광어, 우럭, 참돔 등으로 전체 양식 어류 생산량의 81.1%를 차지함. 연어류 수입량과 2016년 국내 주요 양식 어류 공급량을 비교하면, 광어(41,620톤)와 우럭(1만 8,032톤) 다음으로 연어(1만 3,474톤) 소비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연어 소비, 패밀리레스토랑 증가와 함께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본격화

- 국내 연어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우선 외식문화의 발달 및 식습관의 서구화를 요인으로 들 수 있음. 특히, 2000년대부터 성행했던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등의 영향이 컸음
 - 1980년대까지 연어는 해외 수출을 위한 가공 원료로 주로 수입되었음.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일부 일식집 및 레스토랑 등에서 연어를 고급 식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음
 - 그러나 2000년 중반 연어 요리(샐러드, 훈제 등)를 제공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씨푸드·샐러드 뷔페 등이 급부상하면서 국내 연어 소비가 본격화되었음
- 또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을 기점으로 연어 수입이 급증했음. 식품안전성 등을 이유로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 인근 및 연근해 수산물 소비를 기피한 반면, 원거리에 위치한 연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었던 것이 연어 소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
- 이 외에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노르웨이, 칠레산 연어의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고, 마린 하베스트와 같은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도 국내 연어 수요 확대에 영향을 주었음

7) 2017년 2일간(1월 19일~1월 20일) 892명에게 송어 및 연어류 소비행태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KMI 수산업관측센터)

그림 9. 뉴스로 본 국내 연어류 소비 변화

매일경제(1981.04.06.)

가공 수출용 수산물
수입 무제한 허용(연어)



경향신문(1989.09.26.)

식탁도 개방 바람(연어 등) 수입생산 증가



한국경제(2011.12.26.)

잔칫상 불고기 실종... 칠면조, 연어 증가



연합뉴스(2016.11.13.)

연어, 광어 제치고 '국민횡감' 등극



자료: 각 신문사 및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 국내 소비자 연어 선호도 증대, 특히 2010년대 초부터 급증

- 최근 연어류 수입 증가는 국내 수요 확대에 따른 것임.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구글의 '연어' 관련 검색 빈도를 지수화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어'의 검색 지수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구글은 2011년, 네이버는 2013년을 기점으로 급증했음

그림 10. 연어 및 송어 검색 트렌드 지수(구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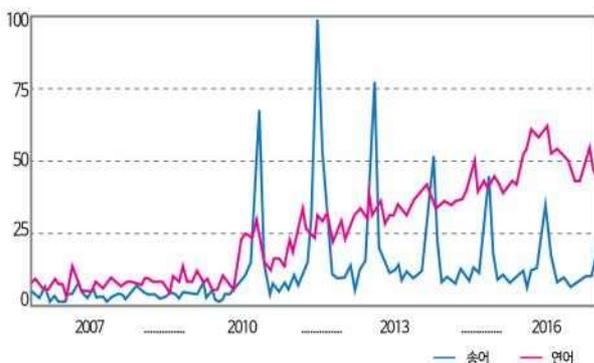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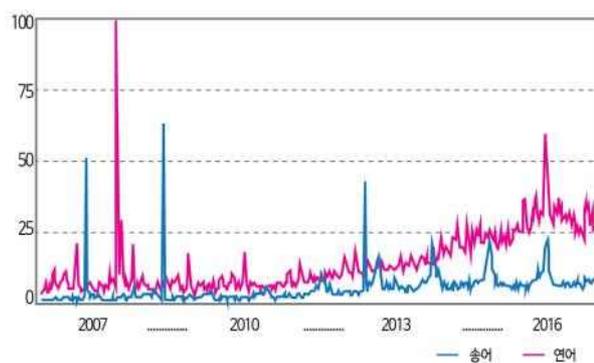


그림 11. 연어 및 송어 검색 트렌드 지수(네이버)



주: 1) 본 그래프는 네이버 통합검색빈도, 구글 트렌드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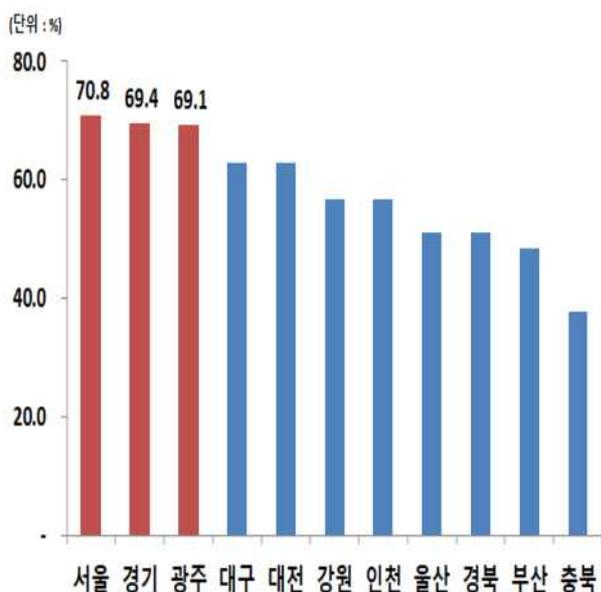
2) 연어 및 송어의 검색 빈도를 합산하여 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한 상대적 지표임

자료: 구글(www.google.com), 네이버(www.naver.com)

■ 연어 선호도 및 관심도, 대도시는 높으나 내륙지 또는 바다 인접 대도시는 낮아

- 연어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연어 소비 경험 및 선호도 또한 상승했음. 2017년 연어류 소비행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연어를 먹어 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어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0명 중 6명이었음
-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수산물 선호도가 낮다고 알려진 20~30대에서도 연어의 선호도는 40~60대와 비슷한 57%로 높았음. 또한 20~30대의 연어 소비 경험이 88%로 40대(85%)와 50대(8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의 연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내륙 지역인 충북, 경북, 강원도나, 바다를 인접한 대도시인 부산, 울산, 인천 등의 관심도는 낮았음

그림 12. 연어 관련 지역별 관심도



주 : 그림 13의 경우 파란색이 진할수록 검색 지수가 높음을 뜻함
자료: (좌)KMI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우)구글(www.google.com)

그림 13. 연어 관련 지역별 관심도(구글)



■ 저렴하고 무한 리필 가능한 연어전문점 최근 2~3년 내 급증,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

- 연어 소비 장소 또한 기존 고급 레스토랑 및 일식집에서 일반 음식점 등으로 다양해졌음. 특히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에 무한 리필이 가능한 연어전문점이 급증하고 있음

- 국내 연어전문점은 2017년 356개로 조사되었으며, 2015~2016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음. 연어전문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앞서 살펴본 연어의 지역별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어전문점 수가 급증한 것이 특징임
- 전국의 횡집 수(약 1만 4,000개)와 비교하면 연어전문점은 매우 적은 수준임. 그러나 여러 어종을 판매하는 일반 횡집과 달리 연어전문점은 ‘연어’ 단일 어종을 판매하는 곳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14. 연어전문점 개업 현황(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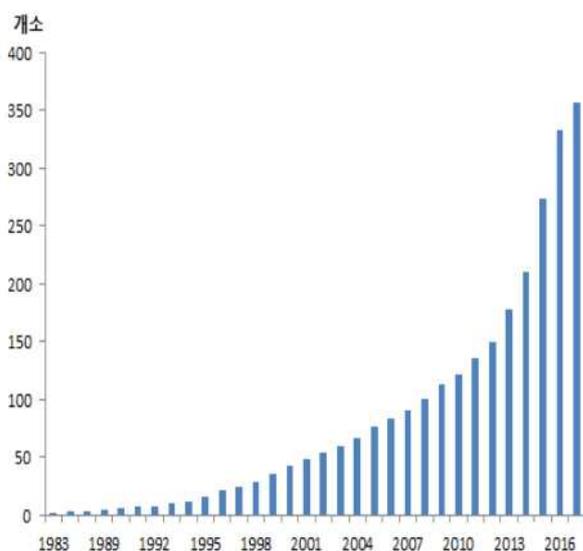


그림15. 연어전문점 현황(2017년)

(단위: 개소, %)

지역별	음식점	비율
서울	93	26.1
경기	66	18.5
부산	37	10.4
인천	33	9.3
광주	30	8.4
기타 지역	97	27.2
합계	356	100.0

자료: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자료(<http://www.localdata.kr>)

국민 횡감 연어, 수급모니터링 및 안정적인 먹거리 관리 필요

■ 국내 연어 수요, 수출가공용에서 ‘횡감용’으로 전환

- 연어는 2015년 이후 국내에서 3만 톤 시장을 형성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산물 먹거리로 자리매김하였음. 과거 수출가공용 원료로 주로 수입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임
- 연어의 소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대도시 중심의 연어전문점들이 경북, 전남 등의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수산물을 기피하는 20~30대 젊은층에서도 연어 선호도가 높기 때문임
- 향후 연어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연어 시장은 기존 3만 톤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연어 수입 의존도 확대, ‘세계 연어 수급모니터링 정례화’ 필요

- 연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으로 수입 연어를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수입 연어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내수면 양식 송어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연어와는 상이한 시장⁸⁾을 형성하고 있음. 또한 해면 양식 연어류는 연간 생산량이 200톤 미만이므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문제는 세계 연어류 공급이 노르웨이, 칠레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나, 수요는 미국, 일본 등 기존의 선진국 외에도 중국, 브라질 등 새로운 소비국들의 등장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이 경우 세계 연어류 가격은 향후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연의존적인 수산업의 특성 상 세계 연어류 수급불균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계 연어 수급 모니터링이 필요함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 차원, ‘안정적인 연어 수급관리체계 도입’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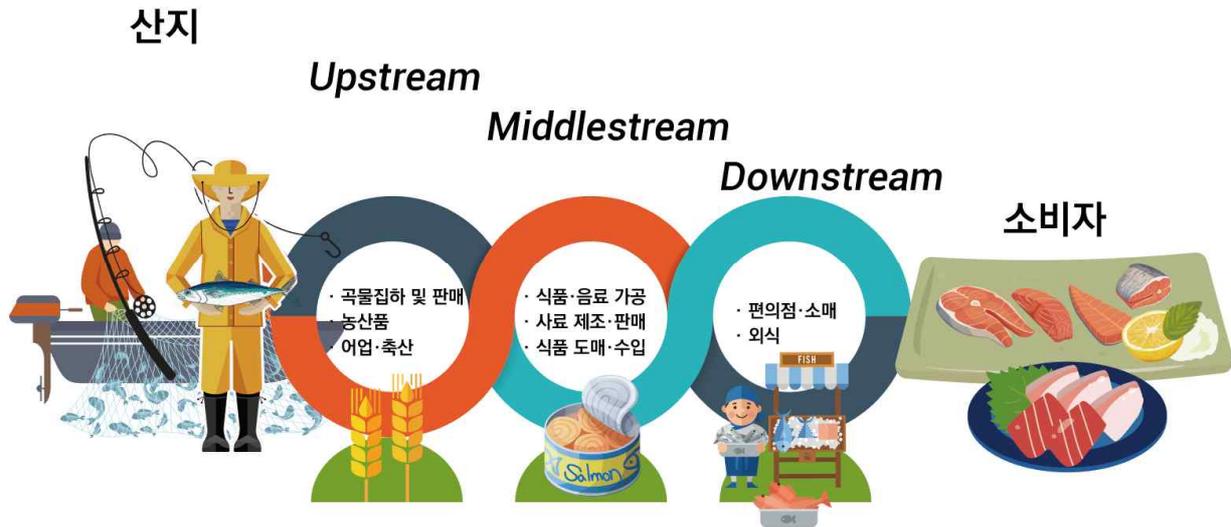
- 최근 연어는 광어, 우럭과 함께 ‘국민 횡감’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 이제는 국민의 먹거리 관리 차원에서 고품질의 연어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정부의 역할 중 하나임
- 이렇듯 국민 횡감으로 등극한 연어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연어의 생산·가격·수출입·소비동향 및 시장변화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입 연어의 체계적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함
- 더욱이 국내 식품정책의 목표가 과거에는 ‘양적 증가’였다면, 지금은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전환된 만큼, 국내로 수입되는 연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안정적 연어 수급을 위한 주요 생산국과의 합작투자 등 ‘공급 다변화 방안’ 모색 필요

- 연어가 우리 국민들의 주요 먹거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세계 주요 연어 생산국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한 ‘공급 다변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일본은 종합상사나 수산기업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해외 양식산업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음. 이는 ‘미래의 식량자원 확보’라는 점과 식량산업이 광범위한 벨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 영역이 많은 사업이며, 수급상황으로 인해 대규모의 물류와 교역이 발생하는 비즈니스기 때문임⁹⁾

8) 내수면 양식 송어는 대부분 강원도 등 주산지에서 소비되며, 그 외에는 송어전문점, 겨울축제 등에서 이루어짐. 그러나 수입 연어는 대도시(패밀리 레스토랑, 대형마트 등)에서 주로 소비되므로 국내 양식 송어와는 소비시장이 상이함

그림 16. 식량사업의 Value Chain



자료: 조항(2016), "일본 종합상사, 식량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POSRI 이슈리포트」, p.6

- 대표적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외 양식 투자를 시행 중인 일본 사례를 들 수 있음
- 첫 번째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연어 생산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공급안정화 방안임. 이는 주요 생산국의 연어 생산 업체를 인수합병하여 자국 내 연어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임
 - 일본 미쓰비시(三菱)사¹⁰⁾는 식량부문 벨류체인 수직통합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연어 공급을 위해 2014년 노르웨이 연어 양식 및 가공 업체인 Cermaq Group을 인수하였음
- 두 번째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어 생산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공급안정화 방안임. 이는 주요 생산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기존 수입량 중 일부를 현지 생산 연어로 대체하는 것임
 - 이 방안도 일본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미쓰이(三井)사¹¹⁾는 칠레의 연어 생산 및 수출 업체인 Salmenes Multiexport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칠레산 연어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음
- 세 번째는 포괄적 방법으로 '다국적 생산 및 판매'를 통한 공급안정화 방안임. 이는 칠레에서 연어를 생산하여 칠레와 태국에서 가공하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일괄시스템 사례임

9) 일본의 종합상사는 다양한 형태로 Value Chain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투자를 강화하는 추세임. Upstream 분야에서는 주로 현지 생산품의 수출 대행을 해 왔으나, 현지에서 집하 및 판매회사 투자, 항만 터미널 투자 등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임. 또한 Middle/Downstream 분야에서도 여러 형태로 사업 참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투자 위주에서 직접 사업경영을 하는 추세임(자료 : 조항(2016), 일본 종합상사, 식량사업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POSRI 이슈리포트, p.6)

10) 미쓰비시사는 노르웨이 연어 양식업체인 Cermaq Group과 미국 곡물회사 Agrex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태국의 새우 양식업체인 TMAC사의 지분도 49% 보유하고 있음

11) 미쓰이사의 경우에도 칠레 연어 양식업체인 Salmenes Multiexport사의 지분을 23%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새우 양식업체인 MPHG사의 지분을 31% 보유하고 있음

- 일본 최대 수산기업인 닛스이(日本水産)의 경우 건강한 연어를 생산하기 위해 칠레의 Salmones Antartica사에서 생산을 담당하며, 닛스이 타일랜드사에서 가공하여 전 세계에 판매함
- 위에서 살펴본 사례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 양식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 법제도 및 정치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그림 17. 일본 닛스이 양식 연어 일괄시스템 사례



자료: 홍현표 등(2009), 「수산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p.108

■ 장기적으로는 국내 양식 연어류 생산 증가로 '수입 연어 대체 방안' 모색 필요

- 우리나라는 연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임. 국내 연어류 생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세계 연어 시장의 변화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장기적 관점으로는 국내 연어류 생산을 통한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현재의 국내 연어류 생산은 내수면 양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양식적지 부족, 수량(水量)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해수를 활용한 연어류 양식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큼
- 노르웨이나 칠레 등 주요 연어 생산국은 우리나라와 원거리에 위치하므로 냉동 또는 신선냉장 상태로 수입됨. 그러나 국내 해면 양식 연어는 활어 상태로 유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음
- 향후 국내 연어류 생산이 본격화 된다면, 국내 해면 양식 연어류가 횡감용으로 소비되는 수입 신선냉장 연어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최근 횡감용 연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해면 연어류 양식산업에 있어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임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종의 양식 기술 개발이 시도되었으나, 산업화된 사례를 찾아보기 드문 것이 현실임. 그 이유는 생산 기술의 문제보다 시장성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임. 국내 연어류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에 앞서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들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카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자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알리바바,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구분	제목	발행일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보틱·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광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URL : <http://www.kmi.re.kr/>